



30일 중국 춘추항공을 이용해 제주를 찾은 중국관광객들.



마스크는 물론 고글 등 중무장한 채 제주에 온 중국인들.

강희민기자

해외 입도객 제주행 방역관리 '허술'

제주공항 일시중단 속 춘추항공 타고 50여명 입도 사전안내·코로나19 문진표 작성 미흡 등 우왕좌왕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셧다운' (일시중단) 됐던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30일 재개된 가운데 해외 입도객에 대한 입국과정에서의 방역관리 체계가 다소 허술하게 이뤄졌다. 특히 최근 제주지역에서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방역에 따른 체계적 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춘추항공 9C8569편이 오전 9시45분쯤 한국인과 함께 중국인 유학생 11명을 포함한 50여명을 태우고 제주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날 승객들이 한꺼번에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국제선 안내 데스크는 사람들로 붐비며 혼란을 빚었다. 도착 승객에게 사전 안내는 물론 문진표 작성도 제대로 안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 발 특별기가 떠서 안내데스크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비쳐졌다"며 "당초 1시간에 6명 정도의 해외방문 이력자를 처리하기로 공항공사와 협의했는데, 특별기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해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나 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하

면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위킹 스루)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완치돼 퇴원했던 제주 1번(군인)이 재발해 다시 제주대학병원에 입원조치됐다.

또한 29일 오후 6시 기준, 유럽·미국발 입국자 90명 가운데 38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이중 2명(도내 7·8번)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9번 확진자는 지난 21일 남미여행을 마치고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이 비행기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며 "하계스케줄에 따라 오는 4월 11일까지 월요일마다 주 1회 운항할 예정이지만, 이에 앞서 4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정기운항 여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현재 중국민항국은 해외 체류 중인 자국민을 대상으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1곳당 1개 노선에 대해서만 운항을 허용토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어 중국발 제주행 노선 운항 재개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춘추항공은 자진 출국을 신청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위해 임시편을 운항하다 지난 18일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백규탁기자

코로나19 제주 1번 군인 확진자 재발

퇴원 일주일만에 또 양성 격리생활해 접촉자 없어

코로나19 제주 1번 확진자(22·해군 상병)가 퇴원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3시 40분쯤 1번 확진자 A씨가 퇴원한지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 재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제주 첫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후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해 이날 23일 퇴원했다. 퇴원 후 A씨는

제주도와 국방부 지침에 따라 부대 내 1인실에서 일주일 동안 시설격리 중이었고, 그동안 별다른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 기간에는 관할 보건소와 군부대 합동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받았다.

A씨는 격리 일주일째인 29일 오후 10시 제주한라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고, 30일 오후 1시18분쯤 미약하게 양성 반응이 나온 '약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2차 검사에서도 약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가 증상은 없지만 양성 반응에 준해 재격리 치료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해외방문 입도객 317명 '자진신고'

149명 코로나19 검사... 2명 확진판정

지난 24일 시행된 '특별입도절차'를 통해 총 317명이 해외방문 이력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특별입도절차를 밟아 해외방문 이력을 신고한 현황은 24일 53명, 25일 65명, 26일 61명, 27일 45명, 28일 75명, 29일 36명 등 총 317명이다. 이 가운데 149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2명(제주 7·8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별입도절차 내용은 유럽과 미국 등 외국을 방문한 경우 무증상이더라도 코로나19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음성 판정 혹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입도 후 14일 동안 능동감시 및 자발적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특별입도절차를 받은 제주 7·8번 확진자는 검사부터 확진 판정까지 통선을 최소화해 접촉자를 줄이는 등 방역지침을 충실히 지킨 모

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30일부터 '제주국제공항 워킹 스루(Walking Thru) 진료소' 운영에 돌입해 입국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격리시설을 마련한 상태다.

이밖에도 해외방문 입도객처럼 코로나19 검사비를 지원하는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신천지 교인·교육생 등이 검사를 받은 경우는 29일까지 총 194명이었으며,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는 없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29일부터 대구~제주 항공노선이 왕복 4편에서 11편으로 늘어나면서 하루 평균 편도 탑승객이 600여명 증가했다"며 "공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만큼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도, 제주 9번 코로나 확진 20대女 동선 발표

사촌언니 만나러 제주행... 14명 자가격리

국내 대학생으로 남미 여행로 향했다.

이 A씨는 27-28일까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맥파이 브루어리와 제주시수협어시장, Y식자재마트, 편의점 등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접촉한 14명(사촌언니 가족 6명 포함)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후 28일 오후 7시 발열, 오한 등의 증상으로 제주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사를 받아 29일 최종 확진판정 받았다.

* 다음은 현재까지 확인된 A씨의 동선.
▶ 3월 27일 ▶ 15:50~16:40 맥파이



코로나19 제주 9번 확진자가 다녀갔던 제주시수협어시장이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이상국기자

브루어리 (회천동·마스크 미착용) ▶ 17:00~17:20 제주시수협어시장 (마스크 미착용) ▶ 17:30~17:40 Y식자재마트 제주삼화점 (마스크 미착용) ▶ 17:40~18:00 자택귀가 (자차) ▶ 3월 28일 ▶ 15:30~15:35 CU 와육점 (자차·마스크 미착용) ▶ 19:00 제주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 (자차) ▶ 19:30~20:00 자택귀가 (자차) ▶ 3월 29일 ▶ 16:20 검사결과 양성 통보 ▶ 18:50 제주대학교병원 이송·입원.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우리공화당 대표 협박범 제주법원 구속영장 기각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사무실 현판에 흉기와 협박 쪽지를 부착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지난 29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해군기지 무단침입 1명 구속

제주해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민간인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송현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군형법(군용시설 손괴죄)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군용시설 침입) 위반 혐의를 받는 송모씨와 류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송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류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상민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방지 가시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정지년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 전 브랜드 50~60% 대할인!!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캠페인

-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그랜드보청기는 고객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2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심의번호 2018-GN1-11-0011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